

정명은 남은 십장고블린들 중 셋이 서 있는 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정명의 검에 서린 오러 앞에 자신들의 방패가 무용지물인 걸 본 세 마리 십장고블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했다.

‘이번엔 네놈들 차례다.’

정명이 당황한 십장고블린들을 향해 검을 휘두르려던 찰나.

“키이잇!”

갑작스럽게 옆에서 무언가 들이닥치는 것이 느껴져 정명은 본능적으로 검의 궤적을 뒤틀어 날아오는 물체를 막아 세웠다.

깡하고 울리는 금속성의 소음과 함께 정명은 그것이 한 고블린 병사가 휘두른 나무몽둥이라는 걸 확인했다.

어느새 족장고블린의 명령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고블린 병사들이 정명을 에워싸고 있었다.

‘헛. 이놈들까지 동시에 상대하려면 정신사납겠어.’

지원군이 합세한 것을 본 다섯 마리의 십장 고블린들은

용기를 얻어 서로 눈짓으로 사인을 주고 받은 후 다시 한번 방패를 고쳐 쥐었다.

그리곤 이번엔 양 쪽에서 일시에 방패돌진을 하여 기고 만장한 상대를 찌그러트릴 준비를 했다.

정명 역시 적들이 반격을 준비하는 기척을 느끼곤 달라 붙은 고블린 병사의 목을 베고자 검에 맞닿은 나무몽둥이를 흘리려 할 때.

- 푸욱!

불쑥 옆에서 나타난 장창이 고블린 병사의 목덜미를 꿰뚫어버렸다.

"형. 이놈들은 저희한테 맡기세요!"

옆을 돌아보니 정명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지용과 지용의 옆을 지키는 소혜가 보였다.

정명의 무용을 목도한 소혜의 눈동자에는 좀 전과 달리 기대감이 보였다.

"나이스 타이밍. 그럼 부탁할게."

"네엠편!"

쓰러지는 고블린 병사의 목에서 장창을 뽑아낸 지용이  
고블린 병사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고.

소혜와 정명이 각각 양 옆의 십장고블린들과 대치하는  
삼각형의 대형을 갖춘 정명의 파티는 본격적인 전투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

양측에서 방패돌진을 하며 들이닥치는 십장고블린들을  
노려보며 정명은 신호를 세기 시작했다.

“셋. 둘. 하나. 온다!”

이미 십장고블린 다섯을 일격에 베어버린 정명에게 십  
장고블린 셋이 들이닥쳐오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  
다.

그렇기에 망설임 없이 놈들을 베어버릴 자세를 잡았다.

‘난 문제없지만 소혜가 잘해줘야 할 텐데.’

잠간의 망설임이 뇌리를 스치지만 정명은 이내 곧 다시  
정신을 집중해 충돌해오는 십장고블린들을 향해 사선으  
로 검격을 내리꽂았다.

자색의 궤적에 맞닿은 세 개의 나무방패가 동시에 수수  
깡처럼 부서져버리는 묵직한 굉음이 울리고.

두 마리의 십장고블린이 비스듬히 썰린 네 개의 살덩이  
로 분리돼 툭툭 모래밭에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십장고블린 한 마리는 남은 검마저 손에서  
놓은 채 모래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보다 한 차원 높은  
힘 앞에 덜덜 떨고 있었다.

“키이이잇!... 키이이이잇!.....”

만약 이곳이 콜로세움이 아니었다면 정명은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대를 살려주었을 지도 모른다.

하나 구원의 엘라이언에게 선택받아 ‘용사의 게임’에 참  
가해버린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결말은 없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여야 하는 이 곳에  
서 만난 그들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행위는 사치였다.

푸욱!...

심장에 내리 꽂히는 정명의 검을 피할 생각조차 못한  
십장고블린은 붉은 피를 뿜어내며 바닥으로 쓰러져 갔  
다.

식어가는 십장고블린의 몸에서 검을 뽑아내고 주변을  
돌아본 정명은 지용이 창을 좌우로 휘두르며 고블린 병  
사들의 접근을 막아 세우는 것을 보았다.

‘역시 탱커 유저. 아주 잘 해주고 있어!’

뿐만 아니라 정명과 지용의 활약으로 용기를 얻은 주변의 다른 후보생 파티들까지 가세해 고블린 군단과 호각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일단 이 부근의 전황은 현재로선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정명은 소혜를 찾아 시선을 바빠 옮겼다.

그러던 중 후보생 진영과 고블린 진영이 뒤엉킨 전장의 한 가운데를 종횡무진하며 두 십장고블린에게 쫓기는 그녀를 발견했다.

‘도적유저 다워. 아직 육성이 덜되서 혼자 죽이진 못해도 최소한 맞지는 않았나 보네.’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며 계속 도망치는 소혜 때문에 두 마리 십장고블린들은 이미 분노하여 다른 후보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 순간 살길을 찾아 헤매던 소혜와 정명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교차했다.

“아아악! 파티장! 나 좀 살려줘!!!”

뒤에 분노한 십장고블린 두 마리를 매달고 안전한 정명의 품으로 질주하는 소혜를 향해 정명은 짧게 일갈했다.

“숙여!”

예상치 못한 답에 눈이 뚱그래진 소혜.

그러나 곧바로 정명의 지시대로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몸을 던졌다.

뒤쫓던 쥐새끼가 넘어졌다 생각한 십장고블린들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녹슨 검을 치켜들었으나.

눈치챈 틈도 없이 자신들을 향해 휘둘러진 자색섬광과 충돌해 목과 머리가 분리되고 말았다.

정명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소혜는 코앞까지 굴러온 십장고블린의 머리통을 보고 나서야 추격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아이 씨발 징그러!!... 허억! 허억! 허억! 죽는 줄 알았잖아 진짜!”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짜증을 부려대는 소혜에게 정명은 비어있는 손을 건넸다.

“빨리 일어나. 전투는 이제부터야.”

그 손을 본 소혜는 금세 침착함을 되찾고 손을 맞잡았다.

“넵. 살려줘서 고마워요. 파티장님.”

부축을 받고 일어선 소혜가 옷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는 동안 정명은 저 멀리 떨어진 다른 후보생들의 무리가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쪽도 있었지만 첫 번째 방패돌격에 완전히 진영이 붕괴되었는 지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는 쪽도 있었다.

아마도 전황이 관찰은 쪽은 자신처럼 동기화이벤트에 성공한 후보생이 있는 곳일 테고.

나쁜 쪽은 아무도 동기화이벤트를 맞이하지 못했거나 실패했으리라.

‘지금은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정명은 다시 퀘스트창을 열었다.

[ 콜로세움 시나리오 - 협동퀘스트 ]

500마리의 고블린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 승리조건: 고블린 진영 전원 살해
- 패배조건: 후보생 진영 전원 사망

생존자 현황

- 후보생: 186/500
- 고블린: 347/500

후보생 112명이 추가로 죽는 동안 고블린은 199마리가 더 죽었다.

드디어 고블린 쪽의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걸 보면 승기가 후보생들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나 역시 불과 몇 십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살아남으려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변해버렸어.’

손에 든 검을 감싼 자색의 오리를 보던 정명은 체내의 마력회로가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오리 역시 희미해지더니 곧 사라져버렸다.

말없이 검을 지켜보는 정명보다 옆에 서있던 소혜가 더 크게 놀라 호들갑을 떨었다.

“어? 저기 파티장님? 검에 오리가 사라졌어. 어... 그럼 안 되는데?”

소혜가 다시 한 번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인지 의문하는 동안 정명은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동기화이벤트를 성공한 덕에 처음보다는 강해졌지만 계속해서 오리발현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다.



【마력회로】와 【오러발현】 특성의 숙련도가 아직 낮아 같은 위력의 오러를 유지하는데도 더 많은 마나가 소비될 수 밖에 없었고 느껴지는 전체 마력의 양 또한 그리 크지 않았다.

아직 해치워야 할 고블린들이 많이 남았는데 자신이 이대로 오러를 쓰지 못한다면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이 잔혹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뭔가 마력을 회복할 방법이 필요해.’

다급하게 주변을 살피던 정명은 이윽고 근처에서 들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정명과 소혜의 바로 근처에 있던 마력석 뒤편을 보니 마력의 흐름에 온몸이 감싸인 채 죽어가는 한 마법사 후보생이 눈에 띄었다.

“아... 아파. 살. 려줘...”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정명을 바라보는 후보생의 상태는 이미 가망이 없었다.

팔다리의 관절이 뒤틀리고 배가 갈라진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더 고통스럽지 않게 누군가가 숨통을 끊어주는 것뿐이었다.

‘썩을 고블린 놈들. 저딴 게 신을 위한 종교의식이라니.  
실제로 보니 상상이상으로 잔악하다.’

고블린 부족은 전투에서 패배하여 부상당한 적들을 하나하나 처형하며 승리의 의식을 치르는 야만적인 전통이 있었다.

고블린병사들이 팔다리의 관절을 나무몽둥이로 내려쳐 부러트리고 나면 심장고블린이 나타나 검으로 배를 갈라버리는 잔혹한 방식의 처형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고 전쟁의 승리를 약속한다 여겼다.

‘제기랄. 다른 방법이 없어. 1초라도 빨리 저 고통을 끊어주자.’

정명의 검에 심장이 꿰뚫린 마법사 후보생이 울컥 피를 내뿜으며 빠르게 시신으로 변해갔고.

그 몸을 감쌌던 마력은 바닥에 널부러진 한쪽 팔의 손가락 끝에 닿은 마력석을 향해 꿈틀거리며 되돌아갔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이름모를 후보생의 명복을 짧게 빌어준 다음 정명은 마력석을 바라봤다

‘원작의 설정대로 마력석에 몸이 닿으면 마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가?’

원작의 세계관에서 마력회로는 마력이 흐르는 길인 동

시에 마력이 저장되는 창고이자 재생산되는 공장이었다.

대기중이나 다른 물체 속에 갇든 마력에 신체가 닿으면 마력회로가 반응하여 흡수해 저장한다는 설정.

정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설정을 검증하기 위해 마력석에 손을 얹었다.

그런 정명을 소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정명의 몸과 마력석 뒤에 가려진 시신은 보지 못한 채.

‘저 아저씨 대체 뭐하는 거지?’

‘프롬타뉴의 반지’는 국산 온라인 RPG게임답지 않게 온갖 세밀한 세계관들을 게임 내에 녹여서 만들어낸 희대의 괴작이었다.

그렇기에 한 번도 메이저 게임은 되지 못하고 마이너한 취향의 게임으로 가늘고 길게 서비스 해왔다.

정명은 거의 백과사전 수준의 방대한 세계관을 하나하나 읽어볼 만큼 게임플레이뿐 아니라 설정에도 진심이었기에 떠올린 검증절차였지만.

소혜는 스토리는 모두 스킵하면서 플레이했던 터라 그런 세세한 설정까진 기억하지 못했기에 정명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흐으읍!”

마력석에 손이 닿자마자 체내의 마력회로가 전신을 휘감은 강력한 마력을 게걸스럽게 빨아들이는 통에 정명은 소혜의 놀란 표정을 볼 여유가 없었다.

본래 마력석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마법사가 행한 마법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마력은 모두 마법식을 거치는 동안 고순도로 정제된 강력한 마력이었다.

즉 지금 정명은 방금 전까지 사용하던 자신의 체내에서 생성된 마력보다 수 십 배는 더 순도가 높은 강력한 마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고순도의 마력이 충전되는 감각이 이런 거였나.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견디며 고갈된 마력을 급속충전하던 정명은 마력회로의 한계까지 마력이 채워진 것을 느끼고 곧바로 손을 뗐다.

“허어억! 허억! 헉! 허억!”

온몸에 식은 땀이 맺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정명에게 다가온 소혜는 걱정스럽게 자신의 동아줄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다시 싸울 수 있죠?”

정명은 대답 대신 인상을 쓰며 손에 쥐고 있던 녹슨 검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곤 방금 마력을 충전했던 마력석이 부착된 상들리에에서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룡소드를 거칠게 뽑아들었다.

그 모습을 보던 소혜는 자신이 말실수를 해 정명을 화나게 만든 줄 알고 당황했다.

“미, 미안해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앗!”

정명이 말없이 불어넣기 시작한 마력이 룡소드로 전달되며 자색섬광이 그 주위를 감싸고.

오려의 희망찬 빛과 다시 마주한 소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토끼 눈이 되었다.

역시 어딜가나 눈치하나로 생존해온 자신이 썩은 동아줄을 잡았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그럼 방금 전에 그게 마력을 회복한 거였어요? 대박!”

마치 본인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소혜를 보며 정명은 그녀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 눈치밥이면 이 게임의 최후까지 살아남을 지

도 모르겠어. 도적은 처음엔 일인분도 못하는 대신 잘 키우면 천장이 없는 클래스인데. 이걸 다행이라 해야하나?’

그렇게 기묘한 팀을 형성한 정명과 소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잠시 잊고 있던 지용을 떠올렸다.

“빨리 다시 지용이한테 가보죠. 언제까지 혼자 고블린 병사들을 상대할 수 있을 지 몰라요.”

“네네!”

정명과 소혜는 저 앞에 보이는 지용의 등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 콜로세움 (3), 끝 -